

House created by a poem

건축과 함께하는

시로 지은 집

장양순 | 건축사사무소 창건축, 한서대 겸임교수

중묘정전의 기둥과 벽체

기둥

소백산 기슭 부석사의 한낮, 스님도 마을사람도 인기척이 끊어진 마당에는 오색 낙엽이 그림처럼 깔려 초겨울 안개비에 촉촉이 젖고 있다. 무량수전, 안양문, 조사당, 응향각들이 마치 그리움에 지친 듯 해쓱한 얼굴로 나를 반기고, 호젓하고도 스산스러운 희한한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나는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사무치는 고마움으로 이 아름다움의 뜻을 몇 번이고 자문자답 했다.

기둥 높이와 굵기, 사뭇히 고개를 든 지붕추녀의 곡선과 그 기둥이 주는 조화, 간결하면서도 역학적이며 기능에 충실한 주심포의 아름다움, 이것은 꼭 갖출 것만을 갖춘 필요미이며 문창살 하나 문지방 하나에도 나타나 있는 비례의 상쾌함이 이를 데가 없다.

-최순우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부석사 무량수전의 배흘림기둥

흔히 두리기둥이라 불리는 목재의 원(圓)기둥은 “두리기둥 서고 청기와 올니 소손 / 저기가 호남문장(湖南 文章) 드나들든”¹⁾이란 시와 같이, 궁궐과 관아, 사찰에서도 중심이 되고 권위를 갖춰야 하는 건물에 주로 쓰였다. 이러한 원기둥은 3개의 양식으로 발전하였다. 기둥의 지름이 어떤 부분이나 똑 같은 원통형 기둥은 송광사 국사전, 내소사 대웅보전, 개심사 대웅전, 정읍 피향정 등에서



화엄사 각황전의 굵은 두리기둥(좌)과 경복궁 근정전의 수직 두리기둥.

보이는데, 민흘림이나 배흘림기둥보다 적게 사용되었다. 위를 좁게 한 민흘림기둥은 화엄사 각황전과 개암사 대웅전, 서울 남대문과 수원 장안문 등에 사용되었으며 안정감이 있다.

배흘림기둥은 서양건축의 엔타시스와 같은 것으로 기둥길이 1/3에서 1/4 높은 곳을 최대지름으로 하여 기둥머리가 가장 작고 밑둥은 기둥머리보다 크지만 기둥몸보다는 작은 형태로 착시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 졌다. 윗 글의 대상인 부석사 무량수전과 수덕사 대웅전, 무위사 극락전과 강릉 객사문 등이 남아있다.

각기둥은 네모기둥이 대부분으로 원형기둥과 같이 민흘림양식을 사용한 곳이 있으며, 관청과 사찰은 물론 민가에서 가장 많이 쓰였다. 각 기둥 중에는 경복궁 내 향원정처럼 육모평면에서 쓰이는 특별한 경우이다. 그리고 팔모기둥은 추녀를 받치는 활주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1) 김동환 「광한루에 올라」

※주기: 시에 있어서 /는 줄바꾸기, //는 연바꾸기, ///는 전략, 중략, 후략 시 사용.

원기둥과 각기둥의 용처를 구분한 것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라는 천원지방(天圓地方)에서 연원한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경회루가 원기둥과 각기둥을 혼용하고, 영양의 석천서당은 정면4칸의 작은 집임에도 복판 2칸 대청의 중앙 기둥과 양쪽 가의 기둥만 두리기둥을 사용하였다. 중앙의 기둥은 2칸의 대청이 하나의 공간으로 느껴지도록 두리기둥을 박았을 것이고, 양가의 기둥은 건물의 각진 것을 싫어하는 한국적 정서가 물신 풍겨난다. 그리고 나머지 두면은 모두 면을 맞추어 공간을 가둬야 하기 때문에 네모기둥을 사용하였다. 정말 조그만 건물인데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²⁾는 글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궁궐의 정전, 향교의 대성전, 사찰의 대웅전과 같은 주전은 두리기둥이었고 이러한 재목을 벨 적에는 나무에게 고사를 지내는 등 의전을 갖추었다. 하지만 위엄을 갖춰 두리기둥으로 지은 궁궐도 빼앗긴 나라에선 한갓 비둘기도 둥주리를 마구 트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 1940년 일제(日帝) 밑에서 신음하던 민족에게 조지훈은 봉황수(鳳凰愁)를 읊었다.

벌레 먹은 두리기둥 빛 낡은 단청 풍경소리 날아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둥주리를 마구 쳤다.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좌위엔 여의주 희롱하는 쌍룡 대신에 두 마리 봉황새를 틀어 올렸다. 어느 팬들 봉황이 울었으랴만 푸르른 하늘 밑 추석을 밟고 가는 너의 그림자. 패옥 소리도 없었다. 품석 옆에서 정일품 종구 품 어느 줄에도 나의 몸 둘 곳은 바이 없었다.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구천에 호곡하리라.

일반인들은 기둥하면 대부분 4각 기둥을 떠올리게 되고, 기둥에 붙이는 ‘춘련(春聯)’을 떠올릴 것이다. 주련(柱聯)은 벽이나 기둥에 세로로 써 붙이는 글씨로, 시구(詩句)를 연하여 걸었다는 뜻인데, 이러한 주련은 사찰이나 고관대작들의 집이 아니면 없는 것임에 반하여 춘련(春聯)은 “立春大吉(입춘대길) 建陽多慶(건양다경) 萬事亨通(만사형통)/집집마다 문 위에 기둥에 새로 쓴”³⁾ 것을 붙여놓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련이나 춘련 때문인지 기둥에는 붙이는 것 말고도 사



1. 주련이 걸린 기둥 2. 에렉테이온(Erechtheion)신전의 여인상 기둥 카리아티데스(Caryatides), 그리스 아테네

랑의 정표를 매기도 하였다.“국수당 기둥에/분홍 땀기 // 어느 집에 매고 갔노 / 남의 눈 꺼리면서 // 남의 눈 꺼릴 적엔 / 혼자 속 태우든 게지 // 산새야 너는 알지 / 행여 내 좋아하든 그 애 아니든.”⁴⁾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감상하다 보면 색깔이 떠오른다. 국수당 기둥은 주칠(朱漆)한 붉은 기둥이어야 연애의 뜨거움에 맞을 것이며, “정겨장 대리석 기둥에 기대어 / 오지 않는 것만 기다리고 섰다. / 낮없는 사람들끼리 모여들다 / 낮없는 방향으로 헤쳐 간 뒤엔 / 대리석 기둥과 내가 도로 남는다. / 그래도 나는 가슴을 안고 뛰리히행 급행열차를 기다리고”⁵⁾의 대리석 기둥은 매끄럽게 다듬은 흰색이 어울린다.

성경 속 이야기를 영화화한 삼손이 데릴라에서 삼손은 신전의 돌기둥을 무너뜨려 자신을 눈 멀게한 필리스티아인들을 죽이는 장면은 영화의 클리이 맥스이다. 아시리아인들은 포로들을 발가벗겨 기둥에 달아 놓기도 하였다.

집을 떠받치는 기둥의 역할은 동 서양이 다를 바 없으나 석재를 사용한 서양과 목재인 동양은 필연적으로 다른 양식을 갖게 되었다. 서양의 돌기둥은 주초(柱礎, base), 주신(柱身, shaft), 주두(柱頭, capital)로 구성되지만, 동양의 나무기둥은 주춧돌이 별도로 일 수밖에 상태에서 서양의 주신부분만을 기둥으로 일컫는다. 그렇지만 무량수전처럼 엔터시스를 가진 기둥은 기초에 면한 부분을 기둥뿌리(柱脚)이라 하고, 평방과 접합되는 꼭대기를 기둥머리 그리고 나머지 몸통부분을 기둥몸(柱身)이라 한다.⁶⁾ 또한 주두가 없는 대신 익공, 주심포, 다포 등에 단청까지 하여 서양의 주두보다 화려한 멋을 내기도 한다.

서양건축의 기둥양식은 주두가 간결한 도리스식(Doric), 화려한 코린트식(Corintian) 그리고 중간형태의 이오니아식(Ionic)의 3양식이 그리스로부터 발전하여 로마시대에는 토스카나식(Tuscan)과 콤포지트식(Composite)이 추가되었는데, 이 5양식은 르네상스 이후에도 사용되었다.⁷⁾ 이러한 양식 외에 그리스 아테네의 에렉테이온(Erechtheion)신전에는 카리아티데스(Caryatides)라고 하는 여인상이나, 아틀란트라는 남성상으로 기둥을 삼기도 하였다. 한국의 경우, 전등사의 추녀를 받들고 있는 나무상이 있으나 기둥은 아니다.

한국의 기둥은 이러한 정형을 탈피하여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나무를 기둥으로 세운 경우가 꽤있다. 더 나아가 수직으로 가공하면 아예 기둥감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굵고 뒤틀린 나무들로 기둥을 삼아 건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창의성 내지 친환경, 자연주의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는 서양은 물론 건축을 자연의 일부로 보는 동양에서도 특히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⁸⁾

2) 김홍식 「한국건축의장 서설」
3) 김달진
4) 김동환 「땀기」

5) 조병화 「역(驛) 부분」
6) 고건축용어집 451쪽
7) 5양식도

8) 서양은 바로크시대에 정형을 탈피하려는 시도로 파베 기기둥이나 용이가 있는 나무형태의 기둥을 만들었다.



3. 개심사의 종루 4. 영주 가학루 5. 청룡사 대웅전 6. 개심사 심검당

이 중 유명한 것으로는 안성 청룡사의 대웅전, 서산 개심사의 심검당, 구례 화엄사 구층암 요사채와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그리고 개심사의 범종각과 영주 가학루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 주목해야 할 것은 개심사 범종각이다. 힘의 형태가 서로 다른 네 개의 기둥으로 큰 종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건축이다. 이러한 예는 기둥 외에 대들보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전북 선운사 만세루는 대들보 위 종보는 디달방아 모양의 Y자 나무를 사용하였다.

동물의 집에도 기둥이 있을까? 정지용은 “외사기마귀 울며 나른 알로 / 허술한 돌기둥 넷이 스고 / 이끼 흔적 푸르르네 / 황혼에 불게 물들다.”⁹⁾며, 사람과 같이 기둥을 세우고 집짓기를 하는 까마귀를 관찰하고, 함민복은 “거미란 시를 한 편 써 봐야지. 우선 거미를 잘 관찰하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집에서 끄꽂 앓는 내게 집은 거미집 기둥 하나가 되어주며 나를 깨우쳤다.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거미를 관찰한다고 발버둥친 생각 전체가 담긴 집이 거미집 기둥 하나로 쓰이다니. 기겁하여 쓴 시가 거미이다. 아니 집이 내 손을 잡고 써준 시가 거미다.”

불빛 나가는 창가에 줄을 쳐 놓았다 / 새소리와 꽃향기를 가로막고 / 내 집을 기둥 하나로 삼아 / 농부가 논두렁에 쪼그려 앉아 있다
-함민복 '거미'

“그늘이 툭툭 떨어져 내리는 날 / 땅 속에 제 발목을 묶고 / 생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지 / 누구도 알지 못했기에 / 몸 안쪽에 세워 놓았을 테지 / 수직의 성(城)이 되어 / 제 자리를 떠나지 못했을 테지 / 눈과 팔다리는 보이지 않아 / 균형을 잃지 않는 한 몰랐을 테지 / 버팀목이란 이름으로 세워져 / 측량한 만큼의 공간에 갇혀 / 다른 노래를 담아 둘 수 없는 / 가슴을 열고 들여다보면 / 달리 과

녁을 빛나간 적 없이 / 남아가는 뿌리의 소리가 들릴테지”¹⁰⁾

감춰지든 드러나든 튼튼함과 아름다움만 생각하면서 무수히 만들어 낸 건축사의 기둥, 그 기둥들에게 시인은 땅에 뿌리박고 거대한 지분을 떠받들며 움직일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생명체로서 애처로운 삶을 그리고 있다.¹¹⁾

벽(壁)

2행시로 유명한 강우식은 “살아가는 슬픔, 벽, 뚫고 넘어도 벽 또 벽, / 가슴에 소금 못을 박고 유수(流水)인생액자도 건다.”¹²⁾면서, 세상사는 어려움을 벽에 비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벽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막힘과 어려움 고독 등과 함께한다. 하지만 건축의 벽은 필요불가결의 존재이다. 집안에 벽이 없다면 부부방도 자녀방도 없으며 화장실도 변기의 위치만 있을 뿐이다. 아파트의 경우 벽이 없다면 옆 집과 한 공간에서 사는 것이 된다. 이는 정전이나 단수 등 일시적 불편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그뿐만 아니라 외부에 벽이 없다면 추위와 더위는 물론 비바람도 막을 수 없으니 집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한국의 전통주택은 대부분 목조로 되어 있으나, 옛날 서민층들은 목재구하기가 어려워 토담집을 지어 살았다. 토담집은 진흙을 짚을 썬 여물과 함께 뒤섞어 대문짝 등을 거푸집 삼아 다져 쌓은 벽에 지붕을 한 것이다. 벽이 두꺼워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장점이 있으나 구조적으로 약하여 방 하나에 한 칸(2.4M) 이상 넓히기가 어려웠고 문을 크게 낼 수도 없었다. 어쩌면 나의 아버지요, 할아버지일 수도 있는 토담집 주인의 한 생이 스스로 지은 토담과 함께 하고 있다.

산자락 토담집 한 채, 벽이 기울었다. 흑 한줌 덩석, 발등에 떨어진다. 멩텅 살점이 나간 흙벽, 벽의 갈빗대가 들어났다. 벽 속에 갈대가 묻혀있다. 군데군데 바람을 매운 자국들, 덧씌운 투박한 손자국에 수심이 가득하다. 누군가 흙손으로 벽의 주름을 펴고 흙 한 덩이 떼어 쳐, 구멍을 메울 때 불도장처럼 마음이 짝했으리, 저 벽 속에 살던 두꺼비 손을 가진 사내, 갈대 한 짐 마당에 부러놓고 벽의 뼈대를 촘촘히 엮었으리, 황토를 저 나르고 실박한 장판지로 흙을 치대면 욕심 없는 맨발에 흙은 반죽처럼 순해져서 벽이 되었을 것, 벽 속에 벽이 들어간 사내는 집의 중심이 되었을 것. /// 중심을 잃은 벽, 입술을 달짝이는데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마정덕 '흙, 벽'

토담집은 쉬이 허물어지기에, 지금 볼 수 있는 한옥은 모두 목조

9) 정지용 「봄」 부분

10) 「기둥의 구조」 박해숙, 인천 강화, 「바람의 벽」 외

11) 일주문, 교

12) 「벽」 강우식, 1942. 강원 주문진 「살아가는 슬픔 벽」, 「중이학」

라고 봐야 한다. 목조한옥의 벽체에 대한 찬사를 보자. “한옥의 입면에 그려지는 추상은 온기가 배제된 차가운 기하학적 추상이 아니다. 집안에 일어나는 훈훈한 가족살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휴머니즘적 추상이며 살림살이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는 리얼리즘적 추상이다. 한옥의 입면은 회벽과 목재 이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절제한다. 문도 꼭 필요한 만큼만 나 있다. 한옥의 추상입면은 비대칭이라는 또 하나의 건축적 매력을 갖는다.”¹³⁾ 그렇지만 회벽이나 회사벽은 대가에서나 통용되던 고급재료이고 통상적으로는 진흙에 벗집 자른 여물과 모래를 섞어 짓이긴 흙벽을 가구 사이 작은 나뭇가지나 대나무로 엮어 놓은 뼈대에 발랐다.

사람들은 동굴생활 속에서도 동굴 벽에 그림을 그렸고¹⁴⁾ 동서양을 막론하고 무덤의 벽과 지상의 벽에도 벽화를 그렸다. 서라벌 황룡사 법당 안에 솔거가 그린 소나무에 새들이 앉으려다 벽에 부딪혀 죽었다는 전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도 벽에 그림을 걸고, 벽에 기대어 가구나 침대를 놓는 등 사람들은 벽과 참으로 친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벽에다 못을 칠 때 애긴데요, 만일에 벽이 못더러 ‘넌 죽어도 안된다’하면 못이 그 자리에 들어가 박힐 수 있을까요? 또 벽에서 못을 뽑을 때 애긴데요, 만일에 벽이 못더러 ‘넌 죽어도 못놔주겠다’ 그러면 못이 나올까요?
-윤제림¹⁵⁾ ‘어린날의 사랑’

벽과 못의 유쾌한 대화와 달리, 아래 시를 벽이 읽는다면 억울하다할 것이다. 작은 못이 버티는 것은 벽의 힘이 그만큼 큰 것이기 때문이다.

“연장통에 누워 있는/녹슬고 쓸모없던/작은 못 하나/바로 세워 벽에 박았더니/내 키만한 거울을/든든하게 잡고 있네”¹⁶⁾

메밀꽃 핀 그림 액자 하나 걸으려고 / 안방 콘크리트 벽에 박는 못 / 구멍만 만들고 풍경은 고정시키지 못한다 // 순간, 그 구멍에서 본다 / 제 몸의 상처 포기하지 않으려고 / 안간힘을 쓰고 있는 벽 / 견디지 못하고 끝내는 떨어져 나온 / 조각들 // 벽, 날카로운 못 끝을 생살로 감싸 안아야 / 못, 비로소 울곧게 서는 것을 // 망치질 박힘만을 고집하며 살아온 나 // 부스러지려는 자신을 악물고 / 기꺼이 벽으로 버티며 견디고 있는, 저 / 수많은 사람들 향해 몇 번이나 / 못질했든가 // 꾸부러지지 않고 튕겨나가지 않고 / 작은 풍경화 한 점 고정시키며 / 더불어 벽으로 살기까지¹⁷⁾

이십년 넘게 벽 같은 남자와 살았다. 어둡고 딱딱한 벽을 / 위태롭게 광광 쳐왔다. 벽을 치면 소리 대신 피가 났다. 피가 날 적마다 벽은 멈추지 않고 더 벽이 되었다. 커튼을 쳐도 벽은 커튼 속에서 자랐다. 깊은 밤, 책과 / 놀다 쓰러진 잠에서 언뜻 깨보면 나는

벽과 뒤엉켜 있었다. / 눈도 코도 입도 숨도 벽 속에 막혔다. / 요즘 밤마다 내가 박혀 있던 자리에서 우수수 돌가루 / 떨어지는 소리 들린다. 벽의 영혼이 마르는 슬픈 소리가/들린다. 더 이상 벽을 때릴 수 없는 예감이 든다. / 나는 벽의 폐허였다. 그 벽에 머리를 처박고 / 식은땀 흘리는 나는 녹슨 대못이었다.

-최문자 ‘벽과의 동침’

‘벽이라 생각하며 함께 살아온 남편, 그런데 지나고 보니 나는 벽 속에 박힌 녹슨 대못’이란 고백은 아내들의 공통분모일 것이다. 못이 안벽의 대상이라면 외벽은 단연 담쟁이가 차지한다. 벽을 온통 푸르름으로 뒤덮는 담쟁이는 희망이며 절망을 덮고 성공에 이르는 투사이다. 삶도 이와 같은 것이지만, 이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인간 담쟁이가 되어버렸다.

담쟁이는 벽을 평지로 알고 산다 / 담쟁이는 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 평지 끝 절망의 벼랑과 만나다 / 벽을 놓지 못한 채 / 제한 몸 던져 / 끝끝내 매달려 있는 / 담쟁이의 벽 / 하늘에 목숨을 맡긴 채 / 평지 끝 절망의 벼랑에서 / 고공 투쟁하는 / 벼랑 끝 절망이 /담쟁이의 희망이다¹⁸⁾

저것은 벽 /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 그때 /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 천 개를 이끌고 / 결국 그 벽을 넘는다¹⁹⁾

앞으로 갈수 없는 길은 // 기어오르는 것인가 // 벽이면 담이면 달려 붙어 / 드디어 넘어서는 것인가 // 교육원 붉은 벽돌담에 달라붙어 뻗쳐 올라간 너를 보면/우리들의 사랑은 노래가 아니라 / 달라붙는 것임을 / 달라붙어 소리 없이 넘어서는 것임을 알았다 // 그리하여 벽은 더 큰사랑이 되고 / 더 큰 절망이 되고 / 절망은 뿌리박고 살며 / 뿌리박고 넘어서는 일임을 알았다 ///²⁰⁾

김과장이 담벼락에 붙어있다 / 이부장도 담벼락에 붙어있다 / 서상무도 권이사도 박대리도 한주임도 / 모두 담벼락에 붙어있다 // 떨어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 밀리지 않으려고 / 납작 엎드려 사력을 다해 / 견뎌내는 저 손 / 때로 바람채찍이 손등을 때려도 / 무릎팍 가슴팍 깨져도 / 맨손으로 암벽을 타듯이 / 영키고 밀어내고 파고들며 / 올라가는 저 생존력 // 모두가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이다 / 이 건물 저 건물 / 이 빌딩 저 빌딩 / 수많은 담벼락에 뻣뻣

13) 임석재 「우리건축 서양건축 함께 읽기」
14) 알타미라 동굴벽화
15) 윤제림, 1959. 제천. 「삼천리호 자전거」 외

16) 고광근 · 시인, 1963. ‘작은 못’ 부분
17) 「못을 박다가」 신현복 · 시인, 1958.
18) 「담쟁이」 강상기, 1946.

19) 「담쟁이」 도중환, 1954.
20) 「담쟁이」 윤재철, 1953. 논산. 「아메리카들소」 외



7. 곡전재. 한옥의 벽은 농염(濃艷)하지 않고 고졸(古拙)하다. 8. 선운사 대웅전 측면의 기둥과 벽체 9. 화엄사

하게 붙어 / 눈물나게 /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²¹⁾

아무리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담쟁이부터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인간담쟁이임을 깨닫게 하는 시와 달리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나 장애 또는 관계나 교류의 단절 등의 시어로써 벽이 존재한다.

노래를 불러도 부딪쳐 돌아오고/눈길을 보내도 꺾이어 돌아오는 / 벽 안에 내가 산다. / 어지럽게 시어(詩語)들 흩어 놓고 / 장난감 가지고 혼자 노는 / 자폐증 환자로 내가 산다 / 그래도 하늘이 있어 하늘보고 희죽이 웃지만/하늘은 반응이 없다 / 그래도 산이 있어 산보고 말 걸지만/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고 산도 모른다 / 그래도 바다가 있어 바다보고 소리치지만 /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 나는 언어를 잊어버렸다 / 벽안에는 강이 있지만 / 강에 흐르는 물은 보이지 않는다 / 나는 벽안에 혼자 산다.

-김필규²²⁾ '벽'

하늘, 산, 바다로 시를 쓰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알아주는 이도 없기에 벽에 딱 막혀 오직 혼자서 몸부림치고, 그럴수록 벽은 더욱 단단해진다.

한낮의 햇빛이 표본처럼 납작하게 눌린 채 벽에 걸려있다. 하얗게 박제된 그 언젠가의 시간이, 나프탈렌 속에 보존되었던 마른 꽃

잎처럼 바스락 거린다. 오려붙인 듯 선명한 한 때의 풍경들이 벽속에 꼼꼼히 저장된다. 그 벽,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고 눈빛도 없다. 슬픔이 고여 응고된 벽의 입안에서 쑥 쑥 자라 올라 범람하는 소리들, 빛들, 세상의 어둠들이, 한밤중이면 무거운 침묵에 들어 스스로 환해진다, 이 안과 밖의 소리, 서로 섞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벽은 더 단단해진다.

-신지혜 '벽의 침묵'

서정주의 '벽'이란 시는 봄날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취를 말하는지, 암울한 일제로부터 해방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으니 위의 시들보다는 희망적이다.

덧없이 바래보든 벽에 지지어 / 불과 시계를 나란히 죽이고 // 어제도 내일도 오늘도 아닌 / 여기도 저기도 아닌 // 꺼져드는 어둠 속 만뎃불처럼 까물거려 / 정지한 "나"의 / "나"의 서름은 병어리처럼 ... // 이제 진달래꽃 벼랑 햇볕에 붉게 타오르는 봄날이 오면 / 벽 차고 나가 목매어 울리라! 병어리처럼 / 오-벽아.

-서정주 '벽'(36동아 신춘문에 당선시)

시의 주제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벽은 기능과 용도에 의해 나뉘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단순하게 처리되지만 외벽은 건물의 성격과 외형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건축사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돌과 벽돌 등 과거의 외벽과 달리 현대의 외벽은 유리와 알루미늄을 비롯한 각종 금속재는 물론 목재류까지 그 재료가 다양하며,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자유곡선과 비정형의 입면들이 속출하고 있다.

/// 하루 종일 나는 그것과 만난다. / 피하면 피할수록 더욱 접근하는 것 / 그것은 너무도 불길을 상징하고 있다. // 지금 거기엔 파리와 / 아무도 읽지 않고 /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격문과 정치포스터가 붙어 있을뿐 / 나와는 아무 인연이 없다. // 그것은 감성도 이성도 잃은 / 멸망의 그림자 / 그것은 문명과 진화를 장해하는 / 사탄의 사도 / 나는 그것이 보기 싫다. / 그것이 밤낮으로 / 나를 가로막기 때문에 / 나는 한 점의 피도 없이 / 말라 버리고 / 여와의 부르시는 노래와 / 나의 이름도 듣지 못한다. -박인환²³⁾ '벽'

박인환은 6·25 전쟁 후 어지러운 정치 세태를 증명하듯,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정치포스터와 격문이 붙어있는 외벽을 보고 절규하며 절망한다. 이러한 전후(戰後)의 불안은 박양규의 시에도 나타난다.

아닌 밤중에 나는 잠을 잃고 내 야윈 눈을 들여다본다. 무엇에다 견주어보자는 듯이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는 심층 등 희미한 벽에 쓰러지는 듯 붙어본다. 벽에는 서리가 싸늘하게 앉아 있었던 건지 너무나 차가움에 놀라 붙었던 손을 떼어 버린다. /// 나는 흥분한다. 손바닥은 가느다란 고동을 느낀다. 손이 숨을 쉰다. 벽이 가느

21) 「담쟁이 넝쿨」 권대웅. 1962.

22) 시집 「가슴에 흐르는 강」

23) 「목마와 숙녀」

다란 숨을 내뿜으면 내 폐부는 가느다란 숨을 내 뿜고 벽이 또 크게 숨을 들이키면 내가 또 크게 들이 킨다. 아닌 밤중 산짐승이 다 죽었는데 나는 벽과 마주앉아 뒤하고도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이 싸늘한 심장을 벽에다 살라놓고 심야(深夜)의 적료(寂寥)를 깨물어 본다.
-박양균 '벽'

평자들은 박양균의 시가 '사물의 정관(靜觀)과 세밀한 묘사를 통해 현실의 다양한 상황과 자연의 대비에 의한 이미지를 형상화시킨다.'고 평한다. 전쟁으로 인한 살육, 이를 정신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고독한 고뇌와 함께,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를 찾을 수 없는 벽 속에 갇혀 있는 신세. 그에 비하면 아래의 시는 어려운 일제시대, 객지생활에 지친 시인의 좁다란 방의 바람벽에서 고향집 어머니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고 있다. 또한 가난을 이기는 고결한 선비정신이 배어 있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 이 흰 바람벽에 /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 그런데 또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 이 흰 바람벽엔 ///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 초승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 그리고 또 '프랑스시 잡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²⁴⁾가 그러하듯이

-백 석 '흰 바람벽이 있어'

타향살이는 아닐지라도 50대 후반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목을 갠 여인숙의 하룻밤, 그 빛바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시도 있다. "여행 마지막 날 나는 무료하게 누워 흰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래된 여관이 으레 그렇듯 사랑해, 내일떠나 따위의 낙서가 눈에 띄었다 벽과 벽이 끝나고 만나는 모서리에 빛바랜 자춧빛 얼룩, 기묘한 흥분을 느끼며 얼룩을 바라보았다 / 두 세계의 끝이며 시작인, 모서리를 통해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다래순 댄스가 났다 ///"
-김선우²⁵⁾ '산청 여인숙'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들이 몇 년 전에 벌써 과반이 되었다. 한국은 외국의 건축전문가들이 학위논문을 쓸 정도로 경이롭게 여기는 아파트 공화국이다. 시인은 남북의 대치상황을 비유하면서 단절과 불통의 아파트를 비판하고 있다. 벽 하나 사이로 너



10



11. 낙안읍성 관사부역의 판벽 11. 담쟁이 벽

의 집과 나의 집을 구별하는 아파트의 벽. 방은 잠자는 사람의 관이 되기도 하고,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의 관이 되기도 한다.

옆집 남자가 죽었다 / 벽 하나 사이에 두고 그는 죽어 있고 / 나는 살아 있다 그는 죽어서 1305호 관 속에 누워 있고 / 나는 살아서 1306호 관 속에 누워 있다 / 우리는 거울처럼 마주 보고 / 마주 보고 드

러눕고 마주 보고 일어나고 / 마주 보고 맨몸에 물을 끼얹으며 / 마주 보고 확성기를 틀고 마주 보고 팬티마음을 하고 / 마주 보고 대포를 겨눈 채 / 오늘 나는 옆집에 문상가지 않는다 /// 관이나 방이나 그와 나는 호수가 다르니까
-김혜순 '남과북'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한 것이다. 벽이 빵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빵을 배고픈 이들에게 나눠주는 마음, 벽을 허무는 경지를 초월한 삶은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다.

나는 이제 벽을 부수지 않는다 / 파스하게 어루만질 뿐이다 / 벽이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어루만지다가 / 마냥 조용히 웃을 뿐이다 / 벽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면 / 봄눈 내리는 보리밭 길을 걸을 수 있고 / 섬과 섬 사이로 작은 배들이 고요히 떠가는 / 봄 바다를 한없이 바라볼 수 있다 // 나는 한때 벽속에는 벽만 있는 줄 알았다 / 나는 한때 벽속의 벽까지 부수려고 망치를 들었다 / 망치로 벽을 내리칠 때 마다 오히려 내가 / 벽이 되었다 / 나와 함께 망치로 내리치던 벗들도 / 결국 벽이 되었다 / 부술수록 더욱 부서지지 않는 / 무너뜨릴수록 더욱 무너지지 않는 / 벽은 결국 벽으로 만들어지는 벽이었다 // 나는 이제 벽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 벽을 타고 오르는 꽃이 될 뿐이다 / 내리칠수록 벽이 되던 주먹을 펴 / 파스하게 벽을 쓰다듬을 뿐이다 / 벽이 빵이 될 때까지 쓰다듬다가 / 물 한 잔에 빵 한 조각을 먹을 뿐이다 / 그 빵을 들고 거리에 나가 / 배고픈 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줄 뿐이다
-정호승 '벽'

다음호에 계속 ㉮

24) 프랑스시 잡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삶은 불행했지만 고결하게 살았던 시인들이다.

25) 김선우. 1970. 강릉. 「내 허가 입 속에 갇혀 있길 거부한다면」 외